

##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우수 축산물

▶ 마니커, 목우촌 닭고기, 올품 선정 ◀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지난 12월 9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제5회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품질이 우수한 축산물의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의 후원으로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브랜드 인증은 소비자시민모임과 우리나라 축산에서는 최고의 전문가 그룹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물HACCP기준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생산자단체로는 본회(대한양계협회)를 비롯해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도 참여하여 엄격한 심사 후 선정하고 있다.

심사 결과 총 47개 경영체가 선정되었는데 축종별로는 한우 24개, 육우 1개, 돼지 19개, 육계 3개이며, 이중 육계는 (주)마니커의 ‘마니커’와 (주)농협목우촌의 ‘목우촌 닭고기’, (주)올품의 ‘올품’이 선정되었다.

이중 42개는 2008년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후 2009년까지 인증이 연장되는 것들이고, 5개는 새롭게 선정된 것들이다. 신규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경영체에는 한우 브랜드 참여우, 참품한우, 청풍명월한우, 한우람 4개와 돼지 브랜드 생생포크 1개이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년간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서 인증 자격을 갖는다. 하지만 인증기간 중에도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힘써야 한다.

보다 자세한 인증 관련 정보는 축산물 브랜드 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hqbrand.net](http://www.hqbrand.net))를 통해 얻을 수 있다.